

# 우리말의 복수 표지 ‘-들’에 관한 소고

홍영예<sup>†</sup>

이화여자대학교

## A Study of the Plural Marker ‘-tul’ in Korean

Young Yeah Hong<sup>†</sup>

Ewha Womans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unmarked and marked plural NPs in Korean, and the possible licensor that allows the plural copying of the marker *-tul*. First, there are often stated to be two kinds of *-tul*: the suffix *-tul* and the auxiliary particle *-tul*. The former is attached to nominal expressions, and the latter to predicates and adverbial expressions. Second, it is argued that *-tul* appears when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plurality, and the plural argument licenses plural copying whether it is overt or covert, or its plural suffix marked or unmarked.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plural copying is a syntactic merge that satisfies the locality condition by denoting its hierarchical structure. The claim of previous research that unmarked and marked plural NPs express genericity and individuality, respectively, is disapproved to some extent, and the effort to explain plural copying through an animacy hierarchy of the subject or through event plurality is shown to be ineffectual in this study.

**Keywords:** licensor, plural copying, marker *-tul*, plurality, locality condition, hierarchical structure

---

## 1. 서 론

라틴어를 모어(母語)로 하는 로망스어(Romance language)는 동사의 어미변화(conjugation)가 인칭, 성, 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현대 영어는 be 동사의 경우에만 인칭과 수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다른 일반 규칙동사들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만 ‘-s’를 붙이고 과거 시제일 때는 일괄적으로 ‘-ed’를 붙인다. 명사의 경우에도 로망스어는 성과 수를 표시하는 반면에 영어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만을 표시한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예문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

<sup>†</sup> Corresponding author: yyhong@ewha.ac.kr



(1) A: Il y a garçons pubères et filles nubiles.<sup>2)</sup>

B: There are pubertal boys and nubile girls.

그런데 한국어는 성, 수, 인칭에 따른 동사의 복잡한 어미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명사의 경우에도 성은 물론이고 수의 개념조차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2) A: 공원에 사람이 있다.

B: 공원에 사람이 많다.

(Lim, 2012: 7)<sup>3)</sup>

(2A)에서 ‘사람’은 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중의성(ambiguity)을 가진다. 그러나 (2B)에서의 ‘사람’은 ‘많다’라는 문맥에 의하여 복수로만 해석된다.

우리말에는 복수 표지 ‘-들’이 존재하고 (2B) 대신에 “공원에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두 표현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을까? 만일 이 둘 사이에 의미 차이가 없다면 언어의 경제성이 우리말에서 복수 표지 ‘-들’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무표형(unmarked) 복수와 ‘-들’이 붙은 유표형(marked) 복수의 의미적 차이를 설명한 많은 선행 논문들이 있다.<sup>4)</sup>

이 논문에서는 우선 복수 표지 ‘-들’의 분포를 살펴본 후에 무표형 복수와 유표형 복수 사이의 의미적 차이를 재검토하고 복수 표지 복사(plural copying)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요소(licensor)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 현상을 통사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해 보려고 한다.

## 2. 복수 표지 ‘-들’의 분포

우리말의 복수 표지 ‘-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하나는 명사나 대명사

1) 로망스어의 경우에는 관사와 형용사도 자신이 한정 또는 수식하는 명사와 일치하는 성과 수를 나타낸다.

2) 프랑스어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e’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을 나타낸다.

3) Nam(2012)은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만들어 낸 예문을 이용한 연구를 지양하고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얻어낸 귀납적 결과를 기술하는 논문을 장려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1998-2003)와 선행 논문에서 가져왔으며, 필자가 만들어 사용한 예문의 경우 문법적 적합성에 있어서 필자의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판독을 거쳤고 과반수 이상이 허용하는 문장(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의 3가지 선택지 중에서 사용함에 해당)을 적합한 문장으로 인정했음을 밝혀둔다.

4) 우리말 명사의 복수형은 Ø-형태소로써 복수를 나타내는 무표형 복수와 복수 표지 ‘-들’이 붙은 유표형 복수의 두 가지가 있다고 널리 주장되어 왔다(Baek, 2002; Cho & Cho, 2011; Jun, 2004; Kang, 2008; Lim, 2012; Noh, 2008; Zheng, 2011).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같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5) An(2007)은 그 용법에 따라 내현적 ‘-들’(intrinsic tul)과 외현적 ‘-들’(extrinsic tul)로 구분하였다.

(의문 대명사를 포함하여)에 붙는 복수 접미사 ‘-들’이고 다른 하나는 용언인 동사나 형용사, 또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나 부사구에 나타나는 보조사 ‘-들’이다.<sup>6)</sup>

2.1.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위치

복수 표지 ‘-들’은 기본적으로 복수명사를 나타내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를 이루는 명사 다음에 위치한다.

(3) A: 아이들이 즐겨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지?

-돈의 여행-<sup>7)</sup>

B: 낮에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맡아 키운다.

-네 마음속의 블루진을 찢어라-

C: 아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시켜보기로 했단다.

-여보게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지-

복수 표지는 위와 같이 가산 명사(countable noun) 다음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우리말의 경우에 복수 표지 ‘-들’이 불가산 명사(uncountable noun)와도 사용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sup>8)</sup>

(4) A: 어서 밥들 먹고 가거라.

-그 곳에 이르는 먼 길-

B: 돈들 내요, 돈.

-어둠의 자식들-

C: 개성적인 이름을 붙인 커피들에서는 진짜 커피 맛을 느끼지 못하는 커피매이  
었다.

-얼굴없는 전쟁-

이처럼 복수 표지 ‘-들’은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되는 듯하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명사가 수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들’의 사용이 제한을 받는다.

(5) A: \*두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B: \*뷔페에서 다섯 접시들이나 먹었다.

C: \*기념일에 장미 백 송이들을 받았다.

D: \*이번 학기에 여섯 과목들을 듣고 있어요.

6) 용언 및 부사나 부사구에 나타나는 ‘-들’을 보조사로 취급한 관점은 Choe(2005)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이때 보조사로 취급하는 기준은 ‘-들’이 격조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점이다.

7) 각각의 예문 다음에 표기한 내용은 세종 말뭉치 중에서 그 구체적인 출처를 나타낸다.

8) (4)에서 ‘밥들을’이나 ‘돈들을’ 대신에 ‘밥들’과 ‘돈들’이 사용된 것은 발음의 편의를 위하여 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6) A: 내가 보기엔 오히려 당신들이 이상합니다. -화술과 인간관계-  
 B: 그래도 너희들은 구경 좀 했잖니? -돈의 여행-  
 C: 우리들은 감격해 하며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2-  
 D: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무대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속의 블루지을 찢어라-

(7) A: 누구들이 뒤에서 조종하는지 모르나 어쨌든 그 비밀은 말하지 않았다.  
-기간문제-  
B: 지금 어디서 무엇들을 하고 있을까? -가을에 만난 사람-

(8) A: 할머니들은 손주를 예뻐들 하신다.  
B: 그 부부는 행복해들 보였다.

Language Research 57-3 (2021) 225-243 / 홍영예

D: 뛰어들 가지 말고 걸어들 가세요.

복수 표지 ‘-들’은 부사나 부사구 다음에도 나온다.<sup>12)</sup>

- 229

(12)에서처럼 청유형, 명령형, 의문형 등의 종결어미 다음에 복수 표지 ‘-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용법은 문어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다분히 구어적 표현이므로 이 경우의 종결어미를 문장 종결어미보다는 발화 종결어미라고 칭하겠다.<sup>15)</sup> 이처럼 ‘-들’의 분포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말의 두 가지 종류의 복수 표지 ‘-들’이 각각 어느 품사와 결합하여 나올 수 있는지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무표형 복수와 유표형 복수사이에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복수 표지 ‘-들’의 복사현상(plural copying)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소(licensor)를 밝힌 후 허용 요소와 복수 표지 사이의 통사적인 환경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복수 표지 ‘-들’의 의미와 속성 분석

#### 3.1. 무표형과 유표형의 의미 차이

우리말에서는 명사의 수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수 표지 ‘-들’은 명사의 복수성(plurality)의 외현적(overt) 표시로 이해되고 있다.

(13) A: 학생이 시위를 한다.

B: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Back, 2002: 60)

(13A)의 무표 명사 ‘학생’은 단독 또는 여러 명이라는 단수 및 복수의 뜻을 갖고 (13B)에서의 유표 명사 ‘학생들’은 복수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13)에서의 무표형 복수와 유표형 복수가 서로 다른 개념적 바탕에 기초한다는 주장과 함께 많은 학자들이 이 둘 사이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Back(2002)은 무표형 복수를 집단적(collective) 복수, 유표형 복수를 분산적(distributive) 복수로 분류했고<sup>16)</sup> Kwak(2003)과 Jun(2004)에서는 전자는 집단(group)의 해석을 갖고 후자는 합(sum)의 해석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Zheng(2011)의 논의에 따르자면 전자의 경우는 한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으로 집단적, 총칭적(generic)인 성격을 갖고

15) ‘-들’의 결합은 다음과 같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i) 모두들 열심히들 합시다들.

ii) 각자들 알아서들 하세요들.

위 예문들을 보면 복수 표지 ‘들’이 모든 항목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들’이 많이 나타나면 날수록 복수성(plurality)이 더욱 더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Song(1997)에서는 이러한 중복 현상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이 중에서 화자가 초점(focus)을 두고 싶은 항목에만 ‘들’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 집단적은 집합적, 분산적은 배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 원저자의 용어 선택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복수 개념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존재를 뚜렷하게 해주는 개체성(individuality)을 갖는다고 하였다.<sup>17)</sup> Kwak(2003)은 배분성(distributivity)에 의거하여 무표형 복수와 유표형 복수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배분사(distributive operator)를 이용하여 다음 문장들의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14) A: \*학생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B: 학생들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Kwak, 2003: 7-8)

Kwak(2003)에 따르면 (14A)가 부적합한 문장으로 판독되는 이유는 무표형 복수는 배분적 의미를 갖기 않기 때문에 배분사 ‘각자’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예문을 보면 무표형 복수와 유표형 복수의 의미 차이를 앞서 언급한 학자들처럼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A: 이 일들은 각자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마는... -맘팔과 함께 춤을

B: 인근 고을마다 장터마다 그 눈들이 떠오른다. -토지 5-

C: 이 책은 각각 상이한 목적 하에 독립적으로 쓰여진...

-천리안의 철학서적 서평-

(15)의 예문에서는 무표형 복수가 배분사 ‘각자’, ‘-마다’ 또는 ‘각각’과 사용되었으며 문법성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무표형 복수도 배분사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배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Kang(2007)과 Lim(2012)도 배분사와 무표형 복수가 유표형과 마찬가지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8)</sup>

(16) A: 각/각각의 학생이/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B: 선생마다/선생들마다 화를 냈다. (Kang, 2007: 4)

그렇다면 유표형 복수명사와는 달리 무표형 복수명사가 나타내는 총칭적(generic)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7) A: 고래(??들)은 포유동물이다.

B: 여자들은 수다스럽다. (Park, 2009: 40-50)

17) 영어에서 the+형용사의 형태는 집합적, 총칭적인 성격을 갖고 형용사+people은 배분적 의미 또는 개체성을 갖는다는 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i) Why do the poor tend to be more generous than the rich?

ii) Volunteers handed foods around poor people.

18) Suh(1994)는 현대 언어학의 분석체계를 채택하여 국어문법을 집대성한 그의 문법서에서 ‘-들’이 파생 접미사로서 단순히 선행어의 의미(복수 표시)를 첨가하여 줄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17A)에서 ‘고래’가 총칭으로서 영어에서도 대표 단수라는 용법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sup>19)</sup> Park(2009)은 (17A) 예문을 제시하면서 영어의 복수 명사와는 달리 우리말의 유표형 복수명사는 총칭적 의미를 나타내기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하였으며 (17B)가 유표형 복수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총칭적 의미를 갖는 것은 미결 문제로 남겨두었다. 필자는 (17A)에서처럼 복수 표지 ‘-들’ 다음에 주제 표지(topic marker)가 붙은 표현이 어색한 이유는 주제화의 경우에 굳이 복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주제화의 경우에도 복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17B)처럼 유표형 복수로도 총칭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필자는 총칭적 의미가 Ø-형태소로서 복수를 나타내는 무표형 복수의 특징이 아니라 주제화(topicalization)의 결과라고 제안한다.<sup>21)</sup>

수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에 ‘-들’ 표지가 결합되는 것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Baek(2002)은 한국어에서 ‘두 사람들’, ‘책 두 권들’과 같은 표현이 의미적으로 잉여적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Kang(2007)은 1,000만 어절의 세종 말뭉치에서 ‘두 노인들’, ‘두 젊은이들’ 등과 같이 수사와 함께 사용된 ‘들’의 구문이 100개 정도 나타난 점을 들어 ‘두’+유표형 복수 표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수량 표현에서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며, Jun(2004)은 ‘-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개별성을 요구하고 ‘-들’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Noh(2008)는 초기 현대 국어와 후기 현대 국어의 678,291 어절의 말뭉치를 검색한 결과 수사 ‘두’가 나타난 명사구와 ‘-들’이 함께 사용된 것이 1회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였다.<sup>22)</sup> 이처럼 ‘-들’이 수사와 함께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복수 표지 정보가 수사가 전하는 정보의 양보다 적기 때문으로 유추한다. 국어는 문법적으로 ‘수의 일치’를 중시하는 언어가 아니므로 정보처리 노력에 비례하는 인지 효과가 없어서 수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영어가 도입되어 학습되면서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와서 영어식의 ‘수의 일치’를 의식하여 복수 표지 ‘-들’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23)</sup>

또한 한정성(definiteness)이 복수성을 제한한다는 주장, 즉 무표형 명사가 한정사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단수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Kwak(2003)은 다음 예문을 통하여 한정사+무표형 명사가 집합적 서술어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19) 예를 들어 The/A lion is brave라고 했을 때 특정 사자 한 마리가 용감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the를 사용했을 때) 대표 단수로서 사자라는 동물 전체에 해당하는 속성을 말한다.

20) 유표형 복수로 총칭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또 다른 예로서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를 들 수 있다.

21) Park(2010)은 총칭성이 명사의 어휘적 특성이나 명사구 표현형과 무관하게 진술이 새로운 일반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주장될 때 성립하는 문장의 특성으로, 세상 지식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의존한다고 설명하였다.

22) 앞에 특정인의 이름이 나와서 그것을 대응하는 경우였다고 한다.

23) Noh(2008: 57-58)는 1880-1940년대의 말뭉치와 1980-2000년대의 말뭉치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영어가 도입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시대 사이에 ‘들’의 사용이 배 이상 늘었음을 보이고 있다.



(18) A: 그 학생들이 모였다.

B: \*그 학생이 모였다.

(Kwak, 2003: 28)

(18A)에서의 ‘그 학생들’은 학생들의 총합이고 ‘모이다’는 행위에 가담하지만 (18B)에서의 ‘그 학생’은 무표형 명사가 한정사로 인하여 단수 해석만을 갖기 때문에 집합적 특성을 가진 동사 ‘모이다’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Jun(2004)은 다음 예문들을 제시하면서 Kwak(2003)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19) A: 그 벌들이/ 그 벌이 모였다.

B: 그 사과들이/ 그 사과가 모아졌다.

(Jun, 2004: 42)

그는 (18B)와는 달리 (19)에서 ‘그 벌’ 및 ‘그 사과’가 허용되는 이유를 유정성 위계 (animacy hierarchy)로 설명했다. 즉, [+인간]의 ‘학생’은 유정성이 높아서 개별성이 두드러져 복수 개체를 지시할 때 개별성을 유표적으로 표시하는 ‘-들’이 붙어야 자연스럽고 유정성이 낮은 표현은 ‘-들’이 동반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정사+무표형 명사의 표현에서 무표형 명사가 유정성이 낮으면 집단적 복수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sup>24)</sup>

한정사+무표형 명사의 표현에서 명사가 복수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다음에 제시한 Yim(2002)의 예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

(20) 그 경찰이 아이들을 집에들 보냈다.

위의 예문에서 주어는 ‘그 경찰’이지만 ‘집에들’에서 보다시피 복수표지 ‘-들’이 부사구와 결합하였다. 그렇다면 복수 표지 ‘-들’이 나타나려면 주어가 복수형이라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보인다는 논지에 따라 무표형 명사 ‘경찰’이 복수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에서의 ‘경찰’은 한정사+무표형 명사의 표현에서 명사가 복수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단수로 해석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Yim(2002)은 (20)에서 복수 표지 ‘-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로 행위의 복수성(event plurality)을 제안하고 있다. 즉, 아이들 집의 숫자만큼 보내는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는 소위 행위의 복수성이 복수 표지 ‘-들’의 출현을 허용한다(license)는 것이다.

다음은 한정사+무표형 명사의 표현에서 명사가 단수라는 가정에 대해 확실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예문인 것 같다.

24) Park(2020a: 187)은 ‘그 학생’과 같이 [+인간] 명사가 한정사와 함께 쓰였을 때는 단수 해석만이 가능하지만 ‘그 사과’와 같이 [-인간] 명사의 경우는 복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직관으로는 ‘그 벌이 모였다’나 ‘그 사과가 모아졌다’는 표현이 상당히 어색하므로 유정성 위계로 설명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21) A: 이 국회의원이 다 무엇을 하느냐?

B: 이 사과가 크다.

(Lim, 2012: 33)

(21A)의 ‘이 국회의원’은 부사 ‘다’가 쓰인 것으로 보아 단수가 아니고 (21B)의 ‘이 사과’도 사과 더미를 가리키며 ‘이 사과’라고 할 때 복수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Lim(2012)은 Lim(2005)과 Jun(2004)에서도 언급되었던 이 예문들을 소개하며 이때 지시성(referentiality)이 관여하여 ‘이 국회의원’이나 ‘이 사과가’의 분석이 ‘[이 국회의원]이’나 ‘[이 사과]가’가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나 ‘이 [사과]가’로 분석되므로 한정적인 무표형이 복수로 해석되는 예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 경우의 무표형 명사가 단수라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를 사용할 때보다 ‘이’를 사용할 때 화자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지시성이 영향을 주어 복수 해석이 가능해지는 특수한 경우로 판단한다.<sup>25)</sup>

여기서 필자는 한 가지 결론과 한 가지 문제는 제기하고자 한다. 한 가지 결론은 Back (2002), Kwak(2003), Kang(2007) 등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무표형 명사가 한정사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단수 해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고, 한 가지 문제는 주어가 복수형이 아니라도 복수 표지 ‘-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 과연 ‘-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2. 복수 표지 ‘-들’의 허용 요소

우선 체언 이외의 문장 요소에 복수 표지 ‘-들’이 나타나려면 외현적이든 내현적이든 복수의 주어가 있어야 한다.

(22) A: 학생들이 열심히들 공부한다.

B: 열심히들 공부한다.

(22A)에서는 ‘학생들’이라는 복수 주어가 외현적으로 나와 있어서 ‘열심히’에 복수 표지 ‘-들’이 결합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가정하는 데 (22B)의 경우는 복수 주어가 없어도 복수 표지 ‘-들’이 나타난다. 이 경우는 음운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내현적 주어가 역시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표지 ‘-들’이 부사와 결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Yoon(2008)은 다음과 같은 이중 주격(double nominative) 구문에서 가장 왼쪽의 명사는 본 주어(major subject; MS), 두 번째 나타난 명사는 문법적 주어(grammatical subject; GS)로 구분하였다.

25) Kiaer(2010)는 ‘-들’의 사용이 화용적으로 그리고 문맥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23) 서울이(MS) 인구가(GS) 많다.

이때 복수 표지 ‘-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주어는 본 주어가 아니라 문법적 주어이므로 다음 예문에서의 정문과 비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24) A: 그 대학이(MS) 교수들이(GS) 공부를 열심히들 한다.

B: \*철이와 영희가(MS) 같이 사는 집이(GS) 아주들 낡았다.<sup>26)</sup>

(24A)에서 ‘열심히들’이 허용되는 이유는 문법적 주어인 ‘교수들’이 복수이기 때문이고 (24B)에서 ‘아주들’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비록 본 주어인 ‘철이와 영희가’는 복수이지만 문법적 주어인 ‘집이’가 단수이기 때문이다.

문법적 주어가 복수 표지의 허용 요소라는 Yoon(2008)의 주장은 Hwang & Park(2020)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25) (내가) (이 사람들이) 지겨워들 진짜.

(2016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이들은 6가지 드라마 대본 말뭉치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는데 위 예문을 그중 하나에서 발췌하였고 문법적 주어의 복수성이 복수 표지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25)와 같이 본 주어와 문법적 주어가 모두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wang & Park(2020)은 복수 표지 ‘-들’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주어의 복수성뿐만 아니라 주어의 유정성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26) A: 경찰 두 명이 공원에서들 쉬고 있다.

B: \*경찰차 두 대가 공원에들 주차되어 있다.

C: 경찰차 두 대가 돌아들 다니고 있다.

이들은 (26A)와 (26B)의 차이를 유정성에 대한 제한으로 설명하고 있다. (26A)의 주어 ‘경찰 두 명’은 유정성이 높아서 복수 표지 ‘-들’을 허용하지만 (26B)의 주어 ‘경찰차 두 대’는 유정성이 없어서 복수 표지 ‘-들’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6C)의 경우는 주어가 (26B)와 마찬가지로 ‘경찰차 두 대’임에도 불구하고 ‘-들’이 사용된

26) 다음의 문장들이 정문인 이유는 문법적 주어 ‘집’과 ‘키’가 각각 복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i) 철이와 영희가 사는 집이 아주들 낡았다.

ii) 철이와 영희가 키가 매우들 크다.

그러나 (24B)의 경우는 “같이 사는” 때문에 문맥상 ‘집’이 단수 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장이 정문이다. 여기서 Hwang & Park(2020)은 ‘경찰차 두 대’를 ‘경찰들’의 환유적(metonymic) 표현으로 보고 (26C)의 ‘경찰차 두 대’를 ‘경찰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정성이 작용하는 환경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화용적(pragmatic) 정보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설명이 임시변통의 장치(ad hoc device)에 불과하다고 본다. (26C)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가 (26B)에는 적용되지 못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다음 예문이 정문으로 판독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화용적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27) 경찰차 두 대가 주차되어들 있다.

(26C)에서 ‘돌아다니다’가 ‘차가 돌아다니다’보다는 ‘사람이 돌아다니다’라는 해석이 선호되기 때문에 ‘경찰차 두 대’를 ‘경찰들’의 환유적 표현으로 본다면 (27)에서 ‘주차되다’는 ‘차가 주차되다’로 이해될 뿐이지 ‘사람이 주차되다’는 불가능한 해석이므로 환유적 표현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이 정문인 것은 복수 표지 ‘-들’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주어의 유정성이 기여한다고 설명하려는 Hwang & Park(2020)의 노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7)</sup> 사실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에도 문장의 다른 요소에 복수 표지 ‘-들’이 나타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28) 이 동네 집이 너무들 고풍스럽다.

(28)에서 무표형 명사 ‘집’이 복수로 해석되고 부사 ‘너무’에 복수 표지 ‘-들’이 결합되는 것을 허용하는 요소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3.1의 예문 (20)과 더불어 주어가 복수가 아닌 경우에도 복수 표지 ‘-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9) A: 체육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닥에들 앉혔다.

B: 건축가가 방들을 크게들 설계하였다.

C: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바르게들 키우셨다.

(20)에서 Yim(2002)은 행위의 복수성(event plurality)을 언급하고 아이들 집의 숫자만큼 보내는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는 행위의 복수성에 의거하여 복수 표지 ‘-들’이 허용된

27) 필자는 Hwang & Park(2020)과는 달리 (26B)가 정문이라고 판독한다. (26B)를 약간 변형한 다음의 예문들도 모두 정문으로 판독된다.

i) 경찰차 여러 대가 거리에들 주차되어 있다.

ii) 경찰차 여러 대가 거리에 주차되어들 있다.

다고 제안하였다.<sup>28)</sup> 그런데 (29B)의 경우는 건축가가 방의 숫자만큼 크게 설계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9A)와 (29C)를 살펴보면 행위의 복수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바닥에들’, ‘크게들’, ‘바르게들’의 출현은 ‘앉혔다’, ‘설계하였다’, ‘키우셨다’는 행위보다는 목적어인 ‘학생들을’, ‘방들을’, ‘자식들을’과 각각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과적인 해석은 학생들이 바닥에 있는 것이고, 방들이 큰 것이고, 자식들이 바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29)의 예문들을 통해서 주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어도 복수 표지 ‘-들’의 출현을 허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가 무표형 복수일 때도 다른 문장 요소에 ‘-들’의 결합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어의 경우에도 무표형 복수 목적어가 ‘-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0) A': 체육선생님이 학생을 바닥에들 앉혔다.

B': 건축가가 방을 크게들 설계하였다.

C': 그 어머니가 자식을 바르게들 키우셨다.

(30)에서 ‘바닥에들’, ‘크게들’, ‘바르게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30)에 나타난 목적어들이 모두 복수의 해석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면 복수 목적어가 복수 표지 ‘-들’의 출현을 허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미적으로 주어+서술어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31) 영화가 책(들)을 책꽂이에들 꽂아들 두었다.

(31)에서 목적어가 무표형인 경우라도 복수로 해석되어야만 다른 문장 요소에 ‘-들’의 결합을 허용한다.<sup>29)</sup> 이때 ‘책’과 ‘책꽂이에’ 사이에 결과적으로 ‘책이 책꽂이에 있다’는 주어+서술어의 의미적 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용언 ‘꽂아’에도 ‘-들’이 사용된 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복수 표지 ‘-들’의 허용 요소로서 문법적 주어 또는 의미적 주어라는 식으로 굳이 주어이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32) A: (옷을) 옷장에들 걸어들 두어라.

B: (신발을) 신발장에들 넣어들 두어라.

위의 예문에서도 내현적 주어의 복수성과 상관없이 무표형 복수 형태인 목적어가 ‘-들’

28) Choe(2005)와 Lim(2012)도 행위의 복수성을 사건의 복수성으로 칭하고 자세히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둘 다 복수형 주어만이 부사나 용언에 ‘-들’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주어가 복수가 아닌 경우에도 ‘-들’이 허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건의 복수성을 제안하고 있다.

29) ‘-들’의 복사를 허용하는 요소로 무표형 복수보다는 유표형 복수가 더 선호되는 것 같다.

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현적 복수 주어가 ‘-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수 목적어가 내현적인 경우에도 ‘-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것 또한 볼 수 있다.<sup>30)</sup>

무표형 복수 주어뿐 아니라 무표형 복수 목적어도 복수 표지 ‘-들’의 복사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문장에 이 둘이 함께 존재할 때 어느 경우에 주어가 ‘-들’을 허용하고 어느 경우에 목적어가 ‘-들’을 허용하는 것일까?

- (33) A: 선생님이 학생을 잘들 가르친다.  
 B: 그 선생님이 학생을 잘들 가르친다.  
 C: ?선생님이 그 학생을 잘들 가르친다.

(33A)는 ‘잘들’이 있기 때문에 무표형 명사인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복수 의미를 갖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33B)는 ‘선생님’이 한정사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단수로 해석되어 특정 선생님 한 분이 여러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해석을 갖는다.<sup>31)</sup> 그런데 (33C)의 경우에는 무표형 명사 ‘선생님’을 단수로 해석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단수이므로 복수 표지 복사를 허용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들’의 출현이 불가능하다. ‘선생님’을 복수로 해석한다면 이 문장을 정문으로 판독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특정 학생 한 명만을 놓고 잘 가르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목적어를 다음과 같이 바꾸면 여러 선생님들이 특정 노래 하나를 잘 부르는 상황이 가능하므로 부사 ‘잘’에 복수 표지 ‘-들’이 결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 (34) 선생님이 그 노래를 잘들 부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3)과 (34)의 예문에 나타난 ‘잘들’의 ‘-들’은 주어 또는 목적어의 복수성과 문맥에 따라서 그 출현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사적으로 허용 요소가 필요하지만 의미적 양립가능성(compatibility)도 고려하여야 할 조건으로 보인다.<sup>32)</sup>

다음 예문을 보면 직접 목적어 뿐만 아니라 간접 목적어의 복수성도 복수 표지 ‘-들’의

30) 주어나 목적어에 나타나는 ‘-들’의 공통점은 복수 표지 복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명사에 주격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기 전에 복수 표지가 붙기 때문에 접미사로 취급한다. 그러나 복수 표지 복사의 경우는 다른 조사가 결합되고 난 후에 복수 표지가 붙으므로 보조사로 취급한다. 따라서 ‘옷장예들’의 ‘-들’은 복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조사이지만 ‘옷장예들’의 ‘-들’은 복수 접미사로 복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31) Lim(2005: 207)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아주들 예뻐한다”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이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른 선행연구에서처럼 복수 주어만이 복수 표지 복사를 허용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예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를 사건의 복수성을 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32) Park(2020b)은 ‘-들’ 복사현상의 수의성 및 반복 가능성과 그 출현이 국부성을 지키는 것 같지만 종결어미 뒤에도 나타나는 모순적 분포 특성에 의거하여 이를 음성형식부에서 삽입되는 현상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의미적 양립가능성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복사를 허용하는 것 같다.

(35) A: 진아야, 이모들한테 맛있는 것 좀 만들어들 달래.

B: 진아야, 이모한테 맛있는 것들 좀 만들어들 달래.

(Kiaer, 2010: 268-269)<sup>33)</sup>

(35B)의 동사구에 ‘-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직접 목적어 ‘맛있는 것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35A)의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사구에 여전히 ‘-들’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간접 목적어인 ‘이모들한테’가 ‘-들’의 복사를 허용하는 요소로 본다.<sup>34)</sup>

또한 다음 두 예문의 문법성 판독이 엇갈리는 것을 보면 소유격 명사도 부사에 나타난 ‘-들’의 허용 요소가 되는 것 같다.

(36) A: 학생들의 건강이 몹시들 나빠졌다.

B: ?학생의 건강이 몹시들 나빠졌다.

(Lim, 2005: 210)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명사에 붙는 복수 접미사가 아닌 보조사로서의 ‘-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복수형의 주격, 목적격, 또는 소유격 명사가 복수 표지 복사(plural copying) 현상을 허용하는 요소로서 외현적으로나 내현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이론적으로 유표형 복수 명사와 무표형 복수 명사 둘 다 복사 현상을 허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표형이 더 선호된다는 결론이다.

### 3.3. 복수 표지 ‘-들’의 통사적 접근

필자는 주어나 목적어가 복수일 때 복수 표지 ‘-들’이 다른 문장 요소에 나타나는 복수 표지 복사 현상을 통사적 구조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Berwick & Chomsky (2016)에서 Chomsky는 언어의 효율적인 연산작용(computation)을 위해 가장 최소화된 모델을 가정할지라도 통사부에 있어서 여전히 결합(Merge)과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인정하고 있다.<sup>35)</sup> 필자는 결합의 한 형태인 복수 표지 복사의 위계적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33) 필자의 논지와는 달리 Kiaer(2010)는 주어나 목적어와 상관없이 동사구에 ‘-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기 위하여 이 예문들을 사용하였다.

34) (35A) 문장의 의미가 ‘ask the aunts to make something delicious’이므로 ‘이모들’이 ‘만들다’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고, 이 경우 동사에 ‘-들’ 복사를 허용하는 요소가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가 말하는 간접 목적어는 의미상의 문법 성분이 아니라 ‘-에게’ 또는 ‘-한테’ 등의 조사가 붙은 형태를 일컫는다.

35) 영어에서 ‘birds that fly instinctively swim’라고 말할 때 ‘instinctively’가 ‘fly’를 수식할 수도 있고 ‘swim’을 수식할 수도 있는 중의성(ambiguity)을 갖지만 ‘instinctively birds that fly swim’라고 하면 ‘instinctively’가 위치적으로 ‘fly’와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swim’을 수식하는 해석만을 갖는다. 따라서

써 이 현상이 가능한 이유를 통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 (37) A: 철수가 [아이들이 밥을 빨리들 먹게] 요리를 하였다.  
B: \*철수가 [아이들이 밥을 먹게] 빨리들 요리를 하였다.

(37)에서 나타난 논항들 중에서 ‘철수’, ‘요리’, ‘밥’은 각각 단수이며 ‘아이들’은 복수이므로 복수 표지 복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이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7A)는 허용 요소가 내포절(embedded clause)에 있고 복수 표지 복사도 내포절에서 일어났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37B)는 허용 요소가 내포절에 있는데 주절(main clause)에서 복사 현상이 나타났으므로 비문으로 판독된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 표지 복사 현상에 있어서 허용 요소와 ‘-들’이 국부성(locality)을 준수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8) A: 군인들이 [철수가 강을 건너가게] 다리를 빨리들 설치하였다.  
B: \*군인들이 [철수가 강을 건너가게들] 다리를 빨리 설치하였다.

위에 나타난 논항 중에서 ‘군인들’은 복수이며 ‘철수’, ‘강’, ‘다리’는 각각 단수이므로 복수 표지 복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요소는 ‘군인들’이다. 따라서 (38A)는 ‘군인들’이 복수표지 복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상위절의 부사 ‘빨리’에 ‘-들’이 결합할 수 있지만 하위절에는 허용 요소가 복수 논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너가게’에 ‘-들’이 결합할 수 없어서 비문이 되는 것이다. 비록 ‘군인들’이 하위절을 성분통어(c-command)하지만 ‘-들’ 복사를 가능하게 하는 허용 요소의 영향권이 절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국부성 제약을 준수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그러나 하위절에도 복수 논항이 존재한다면 복수 표지 복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9) 군인들이 [아이들이 강을 건너가게들] 다리를 빨리들 설치하였다.

(39)는 하위절에 복수 주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게들’이 아무 문제없이 쓰였다. 그리고 상위절의 부사 ‘빨리’에 복수 표지 복사를 허용하는 요소는 더 가까이에 있는 복수주어 ‘아이들’이 아니라 같은 상위절에 있는 ‘군인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수 표지 복사 현상에서 허용 요소와 보조사 ‘-들’의 관계는 선형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

Chomsky는 인간 통사론에서 중요한 것은 한 표현과 다른 표현 사이의 선형적 거리(linear distance)가 아니라 위계적 구조라고 결론짓고 있다.

36) 영어의 선행사(antecedent)와 대용어(anaphor)의 관계에서도 선행사가 대용어를 성분통어하면서 국부성 원리를 지킨다.

i) Mary told herself that John loved her.  
ii) \*Mary believed that John loved herself.



위계적 구조상에서 국부성 원리를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 론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말의 복수 표지 ‘-들’의 분포와 무표형 복수와 ‘-들’이 붙은 유표형 복수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본 후 복수 표지 ‘-들’의 복사현상을 허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를 통사적으로 설명하였다.

2장에서 복수 표지 ‘-들’이 체언인 명사 및 대명사에 나오는 경우와 용언이나 부사 및 부사구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그 분포를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표형 복수가 선호되지만 복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유표형 복수가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서 무표형 복수도 배분적 의미를 나타내고 유표형 복수도 총칭적 의미를 나타냄을 시사했고 복수 표지 ‘-들’의 복사를 허용하는 요소는 주어뿐만 아니라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소유격 등 모든 복수 논항이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수 표지 복사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위계적 구조로 설명함으로써 이 현상이 국부성을 지키는 통사적 결합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무표형 복수를 집단성 또는 총칭성의 의미, 유표형 복수를 분산성 또는 개체성의 의미로 확고하게 구분한 이전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복수 표지 복사를 허용하는 요소로 복수 주어만을 가정하거나 문법적 주어, 주어의 유정성, 또는 행위의 복수성 등의 장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한 시도였음을 이 논문을 통하여 보여 주었다.

#### References

- An, Y. (2007). Korean *tul* and English *all*. *LSO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7: Proceedings of WIGL*, 1-16.
- Back, M. (2002). A study on Korean plural senses. *Discourse and Cognition*, 9(2), 59-78.
- Berwick, R. and N. Chomsky. (2016). *Why only us: Language and evolution*. Cambridge, MA: MIT Press.
- Choe, H. (2005).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bojosa* ‘*deul*(들)’.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53-276.
- Choe, H. (2008). Plural and repetition: Focused on semantic characteristics of ‘*deul*.’ *Korean Semantics*, 27, 315-340.
- Cho, S., & Cho, E. (2011). A pragmatic account of singular/plural interpretations of Korean bare nouns. *Linguistic Research*, 28(2), 373-384.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Hwang, S. & Park, J. (2020). On the distribution of extrinsic -tul: A corpus-based study. *Studies in Linguistics* 56, 119-151.
- Joh, Y. (2013). English dependent plurals and Korean extrinsic plurals.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89-113.
- Jun, Y. (2004). Plurality and its effect on genericity and definitenes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8(2), 27-44.
- Kang, B. (2007). Plurality and Plurality Marker 'deul',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47, 3-31.
- Kang, B. (2008). On the semantic difference of the two plural form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12(2), 115-137.
- Kiaer, J. (2010). On the meaning and distribution of TUL in Korean: Evidence from corpora. *Language Research*, 46(2), 257-272.
- Kim, J., Lee, Y., & Kim, E. (2017). Honorific agreement and plural copying as Korean subject diagnostics: An experimental approach. *Studies in Modern Grammar*, 93, 119-144.
- Kwak, E.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noun phrases in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35, 3-38.
- Lim, D. (2012). The forms and meanings of plurals in Korean. *Korean Semantics*, 39, 25-49.
- Lim, H. (2005). *Reflections on Korean language*. Vol. 1. Seoul: Thaeaksa.
- Nam, K. (2012).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past 60 years-a study of Korean linguistic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61, 27-62.
- Noh, E. (2008).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 Ø-marked and 'tul'-marked nouns. *Discourse and Cognition*, 15(1), 43-62.
- Park, C. (2010).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Korean 'deul'-marked noun phrases. *Korean Semantics*, 31, 51-75.
- Park, K. (2017). A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inguistic typology of object-dominant vs. Action-dominant languages and plural markers in English and Korean. *Studies in Linguistics*, 44, 17-34.
- Park, S. (2009). Anatomy of plural expressio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4(1), 25-52.
- Park, S. (2020a). The role of human and definite features in Korean pluraliza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0(2), 175-196.
- Park, S. (2020b). Plural copying in Korean as post-syntactic agreement. *Linguistics*, 88, 91-113.
- Song, J. (1997). The so-called Plural Copy in Korean as a marker of distribution and focus. *Journal of Pragmatics*, 27, 203-224.
- Suh, J. (1994). *Korean grammar*. Seoul: Tree with Deep Roots.
- Yim, C. (2002). The semantics of non-nominal *tul*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11, 183-202.
- Yoon, J. (2008). Subjecthood and subject properties in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Talk Presented in East Asian Linguistics Seminar*. Oxford University.
- Zheng, H. (2011). About the plural marker *tul* in Korean. *Studies in Linguistics*, 19, 281-302.

홍영예  
조교수  
호크마교양대학  
이화여자대학교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yyhong@ewha.ac.kr

접수일자 : 2021. 2. 18  
수정본 접수 : 2021. 6. 2  
게재결정 : 2021. 6. 22